



미 증시, 타겟 실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되며 급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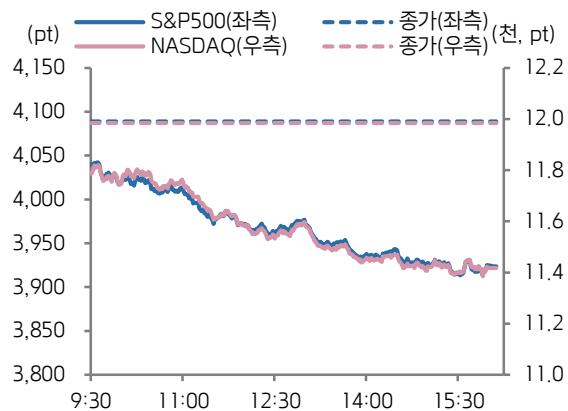
18일 (수) 미국 증시는 타겟 급락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락. 전일 월마트(-6.8%)에 이어 타겟(-24.9%)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 실적(EPS 2.19 달러 vs 예상 3.06 달러) 및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소비주들은 동반 폭락세를 보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향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VIX 지수는 19% 급등하면서 다시 30pt를 상회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8bp 하락하며 2.89%에 마감. S&P500 지수는 1.2% 하락 출발 이후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다우 -3.57%, S&P500 -4.04%, 나스닥 -4.73%, 러셀 2000 -3.56%).

업종별로 전업종이 1% 이상 하락한 가운데 경기소비재(-6.6%), 필수소비재(-6.4%), IT(-4.7%)의 낙폭이 가장 컸음. 타겟 실적 부진 여파로 소비재 섹터들이 각각 6% 이상 폭락. 한편 낙폭이 가장 작았던 업종은 유太高(-1%), 헬스케어(-2.6%), 에너지(-2.8%). 전일 5% 급등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5.2% 급락, 다우 운송 지수도 7.4% 급락.

종목별로 타겟 실적 여파로 코스트코(-12.5%), 달러 트리(-14.4%), 로우스(-5.2%), 홈디포(-5.2%) 등이 동반 하락. 다만 TJX(+7.1%)는 컨퍼런스콜에서 마진율이 여전히 강하고 다음 분기에도 견조할 것이라는 가이던스에 주가 급등. 메타(-5.1%), 마이크로소프트(-4.8%) 등 빅테크 종목들도 급락한 가운데, 특히 테슬라(-6.8%), 아마존(-7.2%), 애플(-5.6%) 등 소비주들의 낙폭이 가장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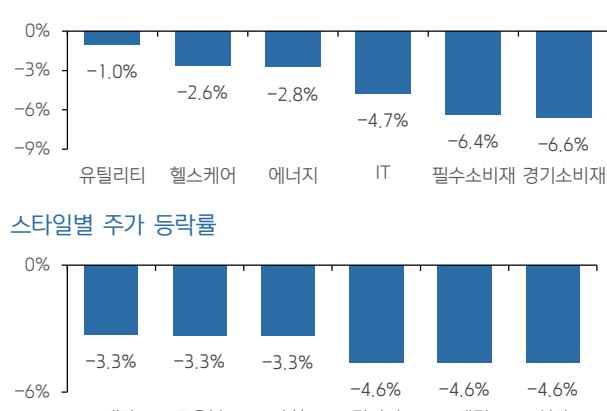
이날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자신의 중립금리 수준은 2.25~2.5%이며 중립 수준에서 50~75bp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긴축적인 정책으로 적당할 수 있다고 언급. 한편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6월, 7월 FOMC에서 각각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 한편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존 4.5%에서 4.0%로 하향 조정.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23.68	-4.04%	USD/KRW	1,266.57	-0.65%
NASDAQ	11,418.15	-4.73%	달러 지수	103.92	+0.54%
다우	31,490.07	-3.57%	EUR/USD	1.05	+0.01%
VIX	30.96	+18.62%	USD/CNH	6.78	-0.01%
러셀 2000	1,774.85	-3.56%	USD/JPY	128.26	+0.02%
필라. 반도체	2,907.96	-5.1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691.66	-7.41%	국고채 3년	3.050	+2.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15	+3.5bp
Eurostoxx50	3,690.74	-1.36%	미국 국채 2년	2.669	-3.1bp
MSCI 전세계 지수	623.64	-2.62%	미국 국채 10년	2.884	-10.2bp
MSCI DM 지수	2,746.82	+1.9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30.83	+2.32%	WTI	109.59	-2.5%
MSCI 한국 ETF	64.23	-3.33%	금	1822.4	-0.1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3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2.1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6.3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증시 폭락에 따른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
-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및 그와 관련된 외국인 매매패턴 변화
- 미국 소매 유통업체들의 동반 주가 급락이 국내 관련 유통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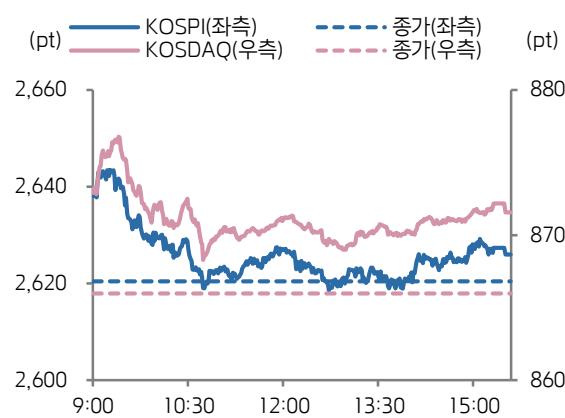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4 월 미국 소비자물가(8.3%YoY)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현재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실적과 가계의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는 모습. 18 일 대형 유통업체 타겟(-24.9%)의 주가 폭락 배경도 인건비 증가 등 비용 부담 심화 및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둔화를 실제 수치 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인. 이처럼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 전가를 시행했던 경기 소비자 업종들의 수익성 악화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 냉각 혹은 침체까지 유발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고용시장 호조, 이연수요 지속, 50 선을 상회하고 있는 ISM 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 쇼크에 따른 침체 논쟁은 이어지겠으나 실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판단. 또한 공급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중국의 봉쇄조치 강도는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주가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현재의 악재성 재료들은 지속적으로 반영해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즉, 5 월 소비자물가, 6 월 FOMC 등 단기적으로 관련 데이터(유가, 실적 전망, 공급난 상황 등)를 확인해 나가면서 위험관리를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 저점 이하로의 주가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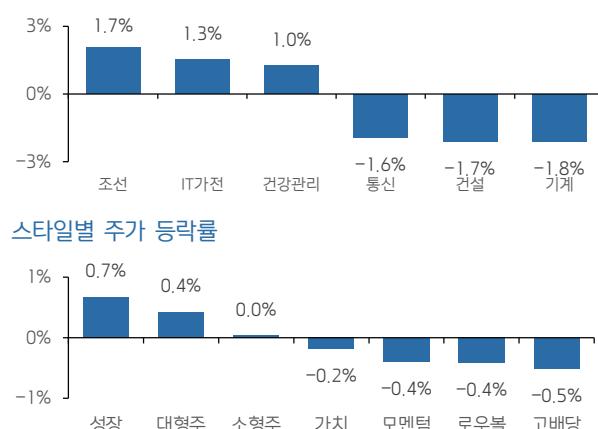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소비 위축 우려, 미국 증시 폭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다만,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일중 변동성, 일간 등락폭이 평소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마켓타이밍 전략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 따라서 시장 당일 분위기에 따른 빠른 매매 대응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며, 혹은 고 환율 효과 및 인플레이션 환경 속 수익성 보전이 가능한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